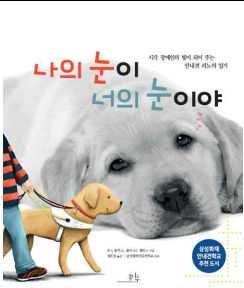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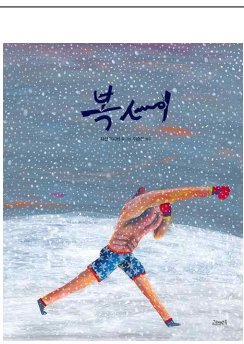




1~2학년 여름방학 추천도서

	Sun : 햇볕 뽕뽕한 날의 기적	샘 어셔 글; 이상희 옮김	주니어랜덤
	거인에 맞선 소녀, 그레타	조위 터커 글; 조이 페르시 코 그림	토토북
	<p>그레타 툰베리가 세상에 보여 준 용기와 의지를 담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환경 그림책이다. 아름다운 숲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여기저기 들쭉시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거인들 때문이다. 숲 속 동물과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그레타만이 용감하게 거인들 앞에 나섰다. 그레타는 숲을 구할 수 있을까?</p>		
	김점분 스웁! 피언	백혜영 글; 심윤정 그림	잇츠북어린이
	나는 가끔 화가 나요!	칼레 스텐백 글·그림	머스트비
	도서관에서 길을 잃었어	조쉬 핑크 글; 스티비 루이스 그림	보물창고
<p>어느 날 새벽 돌사자 용기가 짝꿍인 인내가 도서관 안으로 사라진 것을 알고 찾아 나섰다가 겪는 짧은 모험담이다. 용기가 생전 처음 도서관 내부를 구경하며 미로 속을 헤매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뉴욕공공도서관의 곳곳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도서관을 누비는 용기와 함께 뉴욕공공도서관 안의 여러 명소들을 간접적이지만 아주 실감나게 방문하게 된다.</p>			

	나의 눈이 너의 눈이야	루스 윌록스, 줄리어스 셀런스 글	봄나무
	나의 일곱 가지 감정 친구들	키아라 피로디 글	보랏빛소어린이
	다녀왔습니다	홍민정 글; 최정인 그림	단비어린이
	말의 형태	오나리 유코 글·그림	봄봄
	복서	하산 무사비 글·그림	고래뱃속
<p>노란 옷과 하네스, 손잡이를 몸에 단 채 길에서 활약하는 ‘안내견’. 주인공 안내견 리노는 파트너 루카스의 빛이 되어 주고 있다. 그들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지 리노의 일기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몰랐던 안내견 정보와 지식을 만나 보자. 평소에 안내견과 관련해서 갖고 있던 궁금점이나 안내견을 대하는 법도 살펴볼 수 있다.</p>			
<p>주인공 이슬이가 일곱 가지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동화이다. 이슬이는 때로 기분이 이상해진다. 밖에서 놀고 싶은데 감기에 걸렸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을 때, 놀이에서 반칙하는 친구를 봤을 때, 캄캄한 밤에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문득문득 느끼는 이 기분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기분들을 어떻게 말하고 풀어 가야 할까?</p>			
<p>단비는 태어난 지 50일쯤 되었을 때 자원봉사 가정으로 보내져 1년간 ‘퍼피워킹(안내견이 되기 위한 공부)’ 과정을 거치고,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으로 9년을 살아온 안내견이다. 9년간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의 눈이 되어 누나가 가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갔다. 일생을 누나의 안내견으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 후 이제 처음 만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누나와 헤어지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단비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p>			
<p>만약 말이 눈에 보인다면 어떤 색,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아름다운 말은 꽃의 모양을 하고 있어 형형색색의 꽃잎이 입술에서 팔랑팔랑 떨어져 내릴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은 못의 모양을 하고 있어 말할 때마다 뽕족한 못이 입에서 나가 상대방에게 꽃힐지도 모른다. 목소리에 따라 색이 변할 수도 있다. 단호한 목소리는 주황색, 조용한 목소리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말이다.</p>			
<p>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BIB)에서 2019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무엇이든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깨닫는 과정을 그려낸 그림책이다. 주인공이 생각 없이 주먹을 휘두를수록 그의 주변의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작아져 주인공은 더 외로운 존재가 된다. 그 주인공은 아버지가 남겨준 권투장갑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왜 그에게 주먹으로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또 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p>			

	안녕, 나의 보물들	제인 고드윈 글; 안나 위커 그림	모래알
<p>틸리는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그곳에 자신만의 보물들을 간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틸리네 집을 새 단장을 하면서 벽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 카펫도 새로 깔았는데, 이때 틸리의 비밀 장소가 새 카펫에 막혀 버린 것이다. 소중한 보물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틸리. 틸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p>			
	앵거게임	조시온 글; 임미란 그림	씨드북
<p>‘앵거게임’은 그저 그런 앱 게임이 아니야. 나 대신 화를 폭발시키는 미사일이랄까? 내 분노가 차오르면 화면에 알림창이 뜨고 난 그저 ‘네’ 버튼을 콕 누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주 뽕족한 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상대를 공격! 상대는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고 말지. 푸핫 썸통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법. 나, 윤서해 이대로 괜찮은 걸까?</p>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조셉 코엘료 글; 피오나 룸버스 그림	노란돼지
<p>도서관에서 보내는 루나의 하루를 통해 도서관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마술 책들을 보며 아빠를 데려오는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루나를 보면 아빠와 떨어져 사는 아이의 외로움도 느껴진다. 하지만 루나는 아빠와 보내는 하루를 통해 치유의 힘을 얻는 씩씩한 아이다. 모름지기 책 속에는 그런 힘이 숨어 있으니 말이다.</p>			
	우리 반은 못 말려!	문성희 글; 이주희 그림	한림출판사
<p>거꾸로 하는 것은 뭐든 잘하는 천봉주, 요술봉으로 공주가 되고 싶은 노공주, 오랜 친구 신바람과 구피를 구출하기 위해 힘쓰는 차송이, 송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 주고 싶은 신바람, 대책 없이 긍정적인 변기탁까지 다섯 아이들의 유쾌하고 신나는 동화집이다. 같은 반 다섯 아이들이 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p>			
	우리 집엔 언니만 있다	문정옥 글; 이주미 그림	스폰북
<p>“엄마 아빠는 은비 언니만 좋아해!” “이상해요, 단비가 요즘 들어 부쩍 심술궂어요.” 언니를 질투하는 동생과 영문을 모르는 언니의 옥신각신 생활기. 요즘 단비는 언니 은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언니가 부르면 대답도 안 합니다. 곤히 자는 은비의 인형을 뺏기도 합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은비가 울상을 지으며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단비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능청스럽게 되묻습니다. “내가 뭘?”</p>			

	울타리 너머	마리아 굴레메토바 글·그림	북극곰
	작은 친절	팻 지틀로 밀러 글; 젠 힐 그림	북뱅크
	잠시, 후	김고은 글; 최지현 그림	수피아
	지구의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았더니	데즈카 아케미 글·그림	책속물고기
	한양에서 동래까지	조경숙 글; 한태희 그림	해와나무

2019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 최종 후보작. 아기 돼지 소소는 소년 안다와 함께 아주 커다란 집에 산다. 안다는 소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소는 산책을 나갔다가 야생 멧돼지 산들이를 만났다. 산들이를 만난 뒤 소소는 모든 게 달라졌다. 소소는 울타리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울타리 너머>는 안다와 소소의 일상과 소소와 산들의 만남을 통해 참된 우정과 자유와 용기를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뉴욕 타임스, 시카고 공공도서관, 아마존 등이 선정한 2018년 베스트 그림책. 세심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친절한 마음을 느끼게 하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작은 행동이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잔잔한 이야기지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힘 있고 강렬하다.

2019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청년작가상 수상작. ‘미세먼지가 나쁘니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은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반갑지 않은 지침이 되었다. 이 책은 마냥 밖에서 놀고 싶은 아이, 맘껏 숨 쉬며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의 아쉬운 마음을 담은 동화이다. 원망 어린 시선으로 미세먼지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공감하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동화가 될 것이다.

생각을 더하는 그림책 시리즈. 아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더 넓고 깊이 볼 수 있게 이끌어 준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과학적으로 상상하는 힘을 길러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만드는 특별한 과학 그림책이다.

<지구의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았더니>는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마치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열어 보는 것처럼 지구 곳곳을 열어 준다.

지난겨울, 동래부사로 부임해 간 아버지의 편지가 봄바람을 타고 도착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한양에서 동래까지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기영이와 재영이의 우여곡절 여정을 따라가며, 옛 조상들은 여행을 떠날 때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등 조선 시대의 여행에 대해 알아본다. 과연 기영이와 재영이는 무사히 동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